

[속보] S&P의 브라질 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 보고

(15. 9. 11)

상파울루사무소

S&P의 브라질 신용등급의 투기등급 강등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며 조기 강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은 있었으나 그 여파는 예상 보다는 미미하였으며 당일 금융시장은 회복하는 분위기

1 배경

-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&P)는 10일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'BB+'로 강등하고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'부정적'으로 제시
 - S&P는 금번 브라질 신용등급 하향의 사유로 정치적 혼란,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언급함. (향후 추가 하향가능성 有)

2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현황

- 금번 S&P의 선제적인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인하여 투기등급 하락을 검토해오던 타 신용평가기관들 또한 하향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짐.
 - 최근 타 신용평가사의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은 Fitch의 경우 BBB, Moody's는 Baa3 였으며 이는 투기등급에서 2단계 위 또는 직전수준에 해당

구분	S&P	Fitch	Moody's
투자 등급	BBB+	BBB+	Baa1
	BBB	BBB	Baa2
	BBB-	BBB-	Baa3
투기 등급	BB+	BB+	Ba1
	BB	BB	Ba2
	BB-	BB-	Ba3

3 S&P의 브라질 신용등급 강등 주요 원인

- (정치적 혼란) 정치권과 재계 전반에 브라질의 부패스캔들 조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정책에 대한 통제력과 신뢰도 상실
 -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증세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, 정부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 확보가 어렵고 6개월도 안되어 정부의 재정 수지 목표가 재수정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
- (재정 건전성) 브라질의 재정 건전성 급속 악화
 - 브라질 정부는 2017년 공공 부채수준이 68.8%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
⇒ S&P는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금년에는 65%에 달하고 2017년에 72.2%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
 - 브라질 정부는 올해 7월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GDP 대비 1.1%에서 0.15%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6년은 0.7%, 2017년은 1.3%로 제시
⇒ S&P는 올해, 2016년 국내총생산(GDP)의 8%수준의 재정적자 전망
- (최근 대외환경 악화 및 성장률 저하) 주요 수출품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신흥국의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
 - 브라질의 실질 국내총생산(GDP) 증가율은 2015년 -2.5%, 2016년 -0.5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.

4 금융시장 반응

- (주식시장) 브라질 국가신용등급하락 소식으로 개장과 동시에 46,654에서 45,618로 급락 후 이내 완만히 회복하여 전일대비 0.3%p 하락 마감
- (외환시장) S&P의 등급하락 소식에 헤알·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3.9을 돌파, 브라질중앙은행의 시장개입으로 3.85로 마감
⇒ 국가 신용등급하락으로 달러화 강세 추세는 지속될 전망

5 향후전망 및 시사점

- 최근 증세 등 브라질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적자 예산편성,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.
- 투자은행이나 현지 전문기관 들은 **발빠르게 금년 또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는 추세**

- 현재까지 사무소의 모니터링 결과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**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**으로 보임.
- Petrobras 등 대표기업에 대한 등급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현지 대표기업들의 향후 금융비용 부담은 커질 전망

- 다만, 現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도 특정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형성 또는 M&A를 통한 시장 진입 기회를 가져다 줄 전망
- 사무소는 향후 브라질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 경제위기 경제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지 주요 기업들의 사업 매각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바 **아국기업의 M&A 기회를 파악하여 제공할 계획**